



사랑스러운 '일타스캔들' 남행선은 있어라. 배우 전도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을 통해 살벌한 킬러로 변신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이번엔 손도끼 들고 살인청부업자로 전도연 “사람들 생각의 틀 깨고 싶다”

전도연이 변신을 시작한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에서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극대치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살인청부업자로 돌변한다. 좀처럼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극과 극을 오간다.

전도연은 31일 공개하는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을 통해 사춘기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자 킬러 역을 맡았다. 그에 앞서 21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리는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변신 과정을 들려준다.

극중 최고의 킬러인 그는 설경구가 대표로 있는 살인청부업계의 최고의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게 된다.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킬러 역이니만큼 총과 같은 물론 손도끼까지 사용해 이제껏 본 적 없는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다.

2월 열린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돼 일찌감치 호평 받았다. 당시 영화제에 참석한 전도연은 “내가 액션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전도연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전도연은 이런 배우 혹은 이런 작품만 하는 배우’라는 건 내 스스로가 아닌 타인이 만든 것”이라며 “사람들의 그런 상상, 생각의 틀을 깨고 싶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숨미 기자 smilee@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천진난만했던 네가 그 악랄한 박연진 어머, 웬일이니?”

‘더 글로리’ 임지연에 옛 친구들 전화가 쏟아진 이유

임지연(33)이 제대로 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 박연진 역을 연기하면서 데뷔 12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넷플릭스 전 세계 많이 본 TV 쇼 1위에 오른 “드라마의 인기 덕분”이라고 했지만, 2011년 데뷔 후 처음 맡는 악역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악랄한 연기를 펼쳐 재평가의 기회를 맞았다.

그는 “바람대로 시청자들이 싫어해서 한없이 뿌듯하다”며 2021년 겨울 ‘더 글로리’ 대본을 처음 받은 날을 떠올렸다. 임지연은 “박연진에게 어떤 서사도 만들어 주지 않고, 한없이 망가뜨릴 거라던 김은숙 작가님의 말에 ‘너무 좋아요!’라며 박수쳤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날부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품었다”고 말했다.

●“나만 할 수 있는 악역”

극중 박연진은 교고시절 지독하게 괴롭힌 송해교의 복수로 인해 남편과 딸에게 버림받고 나라으로 떨어진다. 그동안 선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왔던 그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캐릭터”였다.

“하루 종일 연진으로 살다가 집에 들어 가면 세상이 다 짜증났어요. 스스로 ‘왜 이렇게 성질이 나지?’ 심을 때도 많았고요. 엄마가 제 얼굴에 무서운 그늘이 있다며 놀랐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어떤 톤으로 박연진을 연기해야 할지 몰라 다양한 버전을 준비해보기도 했어요. 치열한 고민 끝에 기존에 한 번도 없던, 나만 할 수 있는 악역을 해보자는 결론을 얻었죠. 그 후로는 박연진에 수월하게 몰입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와 달리, 실제로는 “어떻게든 나내고 싶어서 수련회 장기자랑부터 합

창대회 지휘자까지 나서서 하던 아이”였다.

“드라마가 공개되고 난후 학창시절 친구들의 연락이 엄청 왔어요. ‘장기 자랑 나가려고 S.E.S와 핑클 춤을 따라 추던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나’면서요. 하하하! 저는 어릴 적부터 배우 준비를 했었기에 학폭 문제를 잘 알지 못했어요. **드라마를 접한 후 학폭이 결코 묻히지 말아야 하고,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 관련 책임이나 사건들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매번 절실한 마음으로”

그동안 연기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훌훌 털어냈다. 임지연은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름대로는 모든 작품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혼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연기 경력을 쌓아온 덕분에 연진이를 만나 칭찬받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껏 해왔던 대로 걸어가려고요. 그러면 저만의 방향을 찾는 날이 오겠죠. 다만 언젠가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들뜨지 않고, 성장에만 집중하려고요.”

‘더 글로리’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다른 ‘변신’을 준비 중이다. 최근 촬영을 모두 마친 새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박연진의 성공에 개의치 않고 연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작품에 나오는 저를 보면서 ‘재가 그때 그 박연진이라고?’하면서 못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연기의 재미죠.”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멋지다! 박연진!” 임지연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악역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골프

이소영-황유민 앞세운 롯데...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디오션 비치콘도·발리스틱립 여자구단대항전 사흘내내 환상 호흡...“서로 실수 잘 막아줬다”

이소영과 황유민이 사흘 내내 환상 호흡을 자랑한 롯데가 여자골프 구단대항전 패권을 차지했다.

이소영과 황유민은 19일 전남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디오션 비치콘도·발리스틱립 골프구단대항전’(총상금 6000만 원)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10개를 적어내며 12언더파 60타를 합작했다. 사흘간 함께 23언더파를 기록해 우승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2위는 김수지 박주영 장수연 지한솔 등 4명이 번갈아가며 출전한 동부건설(19언더파)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창설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구단대항전 형식으로 총 12개 팀이 참가해 컷 탈락 없이 3라운드 합산 최저 타수로 우승 팀을 정했다. 1, 2라운드는 변형 포섬 방식(그린섬)으로, 최종 라운드는 스크램블 방식으로 펼쳐졌다.

둘이 팀을 이뤄 사흘 내내 리더보드 최상단을 지키며



‘디오션 비치콘도·발리스틱립 골프구단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롯데 이소영(왼쪽)과 황유민. 사진제공 | 크라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6승의 주인공 이소영은 “3라운드를 앞두고 공격 위주로 플레이하자고 작전을 세웠다. 플레이 중간 나왔던 실수를 서로 잘 막아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후배인 황유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올해 루키로 데뷔 시즌을 맞는 황유민은 “서로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다”며 “신인으로 첫 시즌인데, 적응도 잘 하면서 꼭 우승도 했으면 좋겠다”고 시즌 포부를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애덤 쟁크, 165번째 대회만에 데뷔 첫승 눈앞

정상급 선수 대거 불참한 발스파 챔피언십 3R 단독1위...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찬스

애덤 쟁크(미국)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하버 이니스브룩 리조트 코퍼헤드 코스(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총상금 810만 달러·106억 원)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5타를 기록해 공동 2위 조던 스피스(미국),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이상 7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1위를 유지했다.

1라운드 공동 선두, 2라운드 1타 차 선두에 이어 3라운드에서도 리더보드 최상단 자리를 지킨 쟁크는 2018년 투어 입문 이후 165번째 대회 만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데뷔 첫 승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지난주 열린 ‘제5의 메이저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2500만 달러)과 다음주 열리는 ‘특급대회’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총상금 2000만 달러) 중간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톱



애덤 쟁크가 발스파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8언더파 205타로 단독 1위를 유지했다. 19일(한국시간) 3라운드 2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애덤 쟁크. 팜하버(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10 중 10위인 저스틴 토마스(미국)가 유일하게 출전하는 등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불참했다.

토마스는 3라운드까지 합계 2언더파 공동 20위에 자리했고, 최근 2년 간 이 대회 챔피언을 차지하며 3연패에 도전했던 샘 번스(미국)는 합계 1언더파 공동 25위에 랭크됐다.

우리 선수 중에선 안병훈(32)이 공동 25위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했고, 김성현(25)은 1오버파 공동 45위, 이경훈(32)은 4오버파 공동 68위에 머물렀다. 김도현 기자